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임팩트그라운드 성과보고서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Contents

여는 글

1 대담한 시도와 커다란 변화, 임팩트그라운드

1. 임팩트그라운드 프로젝트 목적과 원칙
2.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선정 기준과 과정
3.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소개
4. 혁신조직을 위한 임팩트 강화 지원 프로그램

06

2 임팩트그라운드의 사회변화경로와 임팩트 트리거(Impact trigger)

1. 사회문제 해결과정: 사회변화경로
2.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메커니즘: 임팩트 트리거(Impact Trigger)
 - 1) 솔루션의 기술화
 - CASE 1 서울재활병원
 - CASE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CASE 3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 2) 플랫폼을 통한 협력과 지식공유
 - CASE 4 푸른나무재단
 - CASE 5 세상을품은아이들
 - 3) 참여적 지지자의 발굴과 참여
 - CASE 6 점프
 - 4) 전문 지식과 경험의 활용
 - CASE 7 공익법재단 공감
 - 5) 시장원리의 활용 또는 시장과의 제휴
 - CASE 8 열린온장
 - CASE 9 피치마켓

14

3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의 2023~2024년 주요 성과

1. 임팩트그라운드의 임팩트 프레임과 측정지표
2.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는 혁신조직의 주요 성과

닫는 글

62

표 목차	표 1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선정 기준	09
	표 2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소개 요약	10
	표 3 임팩트 트리거(Impact Trigger) 5가지 유형	16
	표 4 임팩트 프레임 공통 지표 체계	63
그림 목차	그림 1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선정 과정	09
	그림 2 사회변화경로의 3단계	15
	그림 3 서울재활병원의 RISE 플랫폼 소개	21
	그림 4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화학안전 공공IT솔루션 운영 구조	25
	그림 5 오션의 스카이나이츠와 바다기사단 화면	29
	그림 6 푸른나무재단의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35
	그림 7 세상을품은아이들의 RTS(사례관리 시스템) 화면	39
	그림 8 사단법인 점프 활동 사진	45
	그림 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성과 사례	51
	그림 10 열린옷장의 온라인 의류 공유 시스템 화면	57
	그림 11 피치마켓의 피치서가 소개 화면	61

여는 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이 과제들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연결된 맥락 속에서 이해합니다. 교육과 일자리, 환경과 지역사회, 의료와 인권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건강한 삶이 유지되어야 지역사회가 활력을 얻으며, 환경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세대를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육, 환경, 의료, 인권, 일자리와 같은 문제들은 그 어느 하나 가볍지 않으며,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임팩트그라운드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큰 지도 위에 펼쳐놓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Big Bet(빅벳)”이라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이는 단순히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담은 결단입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혁신적인 해법을 가진 조직이 더 큰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특정 프로젝트에만 제한되지 않고, 조직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를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의 또 다른 특징은 투명성과 성과 중심의 운영입니다. 참여 조직은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결과물을 공개하여 사회 전체가 그 과정과 성취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식과 경험이 사회혁신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은 조직들은 2023~2024년 동안 1,900개가 넘는 단체와 연결되었고, 약 100만 명의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그 성과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 80여 건의 정책 및 법률 제·개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큰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작은 도움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붙잡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그 결단을 현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빠르고 멀리, 그리고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Part 1

대담한 시도와 커다란 변화, 임팩트그라운드

2025
IMPACT GROUND
PERFORMANCE
REPORT

2024 Impact Ground Performance Report

1 임팩트그라운드 프로젝트 목적과 원칙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1) 'Big Bet Philanthropy(대담한 자선)'를 지향합니다.

Big Bet Philanthropy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큰 규모의 자원을 과감히 투자하는 자선 전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부 규모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선택과 집중의 결단을 담은 접근입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의 크기와 복잡성에 걸맞은 해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Big Bet Philanthropy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 혁신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투자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개별 사업계획의 성과보다,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중시합니다. 조직이 가진 고유한 관점과 프레임워크가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 인지, 그리고 그 조직이 이를 실행할 신뢰성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3) 장기적인 집중지원을 제공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단기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제도와 정책, 사회시스템 수준에서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조직과 협의하여 최대 5년간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변화를 뒷받침합니다.

4) 유연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전략과 계획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처를 특정 프로젝트나 항목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의 혁신적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에 기반한 지원 방식입니다.

5) 커다란 변화를 위해 함께 위험을 감수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안전하고 검증된 사업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은 있더라도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기꺼이 지원합니다. 이는 혁신조직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며, 더 큰 변화를 향해 도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6) 조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Big Bet Philanthropy의 철학에 따라 조직의 고유한 방식과 필요를 존중합니다. 지원 규모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지원금은 사업비뿐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등에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형식도 자유롭게 두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조직이 본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선정 기준과 과정

2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미 혁신적 접근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비영리 조직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한 사업 실적이 아니라, 조직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과 확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혁신조직을 선정합니다.

표1 임팩트그라운드 혁신 조직 선정 기준

Q1.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유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조직이 특정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독창적 모델(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을 통해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시도하는 조직을 찾습니다.

Q2. 그 모델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는가?

혁신적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조직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Q3. 솔루션을 확장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갖추었는가?

사회문제 해결은 개별 지역이나 집단을 넘어 더 넓게 확산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따라서 임팩트그라운드는 조직이 혁신적 모델을 스케일업(확대 적용)하거나 스케일아웃(다른 지역 및 대상으로 확산)할 구체적인 전략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Q4. 건강한 조직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조직이 안정적인 성장 과정을 밟아왔는지, 그리고 리더가 명확한 비전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회문제 해결은 장기적 여정이기에, 건강한 조직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은 필수 조건입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엄격하면서도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혁신조직을 선정합니다. 우선 파트너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 조직을 발굴합니다. 이후 조직의 성격과 전략에 따라 적합한 지원 트랙을 분류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실제 활동 방식과 조직 역량을 면밀히 검토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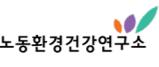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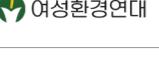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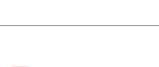
현장심사를 통과한 조직은 ‘미래비전계획 발표(Presentation Day)’에서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발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심사위원회는 조직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임팩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선정된 조직은 임팩트그라운드와 함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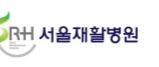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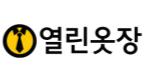
그림 1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선정 과정



3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 소개

표 2 임팩트그라운드 혁신 조직 소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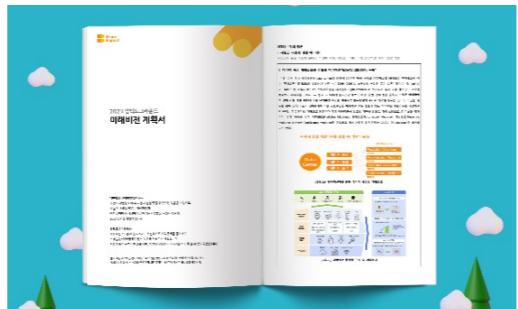
기관명	선정연도(기수)	지원금액	기관 소개	사업분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21년(1기)	30억 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연구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공개 IT 솔루션을 운영하는 민간 독립 연구소	바이오 모니터링, 화학안전 공공IT시스템 개발, 아시아 환경문제 조사분석
 sepuma	2021년(1기)	10억 원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단체	위기청소년 돌봄·교육·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로탐색, 취창업준비, 학업지속 등)
 나눔	2021년(1기)	30억 원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단체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 인권옹호와 인식개선 활동
 여성환경연대	2021년(1기)	10억 원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를 추구하는 단체	월경 인식 개선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
 인권재단 사람	2021년(1기)	10억 원	인권 활동과 활동가를 지원하고, 인권 활동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단체	인권활동가와 단체 지원, 정책 연구, 인권 감수성 교육
 포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2021년(1기)	10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단체	학교폭력 상담과 치유 및 예방 교육, 제도 개선 활동
 공감 문화의 전통·현장·미래	2022년(2기)	10억 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인권침해 사건 지원, 법·정책 개선, 공익변호사 지원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2022년(2기)	10억 원	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을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온실 温室气体削減促進研究会	2022년(2기)	3억 원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민간 연구소	시민과학조사, 해양쓰레기 저감 캠페인, 교육·정책 협력
 동행	2022년(2기)	2억 원	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안전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긴급지원, 번아웃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
 립동 사회민생·환경·문화 혁신 협동조합	2022년(2기)	3억 원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단체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위기지원, 지지자원 연계, 인권옹호 활동
 미래고시 네트워크	2022년(2기)	3억 원	공교육 혁신과 학생 주도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실험과 연구,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을 수행하는 단체	미래형 수업모형 확산, 탈중앙 교육생태계 조성
 BtoB	2022년(2기)	2억 원	위기상황에 놓인 부모가 건강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돋는 자원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단체	위기임신 가정의 양육과 자립 지원

기관명	선정연도(기수)	지원금액	기관 소개	사업분야
 THE BIG ISSUE	2022년(2기)	5억 원	주거취약계층(홈리스)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이자 사회적기업	주거복지, 자립지원(빅이슈 잡지), 인식 개선
 RH 서울재활병원	2022년(2기)	50억 원	전 연령 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전문 재활의료, 공공재활 모델 구축
 APIL 공익법센터 어필	2022년(2기)	8억 원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지원, 제도개선, 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공익변호사 단체	법률지원, 입법운동, 인식개선
 열린옷장	2022년(2기)	2억 원	정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과 응원을 전달하는 정장(의류)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공유문화 확산과 환경 성과에 기여하는 단체	정장 대여 및 기증, 취업지원프로그램
 JUMP	2022년(2기)	10억 원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이타적 미래인재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삼각멘토링에 기반한 현장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체	체인 멘토링, 장학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리산 이음	2022년(2기)	5억 원	사회적 변화 활동을 지원하고 공간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실험을 지속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역활동 지원
 PEACH MARKET	2022년(2기)	10억 원	'느린학습자의 실질문맹개선과 정보평등'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쉬운 콘텐츠를 개발 및 교육하며 느린학습자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	쉬운글 콘텐츠 개발, 문해교육, 학습 프로그램
 Handspeak	2022년(2기)	3억 원	농인·청각장애인의 문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션으로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 및 양성하고, 수어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단체	수어 문화콘텐츠 제작, 농인 아티스트 양성, 문화아카데미 운영

4 혁신조직을 위한 임팩트 강화 지원 프로그램

1) 미래비전워크숍

참여 조직이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조직이 그려가는 변화의 경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워크숍을 통해 각 조직은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공유회

임팩트그라운드에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활동 경험과 성과, 배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간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임팩트 측정 지원

혁신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팩트 측정 도구와 방법론을 제공해, 각 조직이 자신들의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법제정연구지원, 법률상담지원

법제도 개선 활동과 조직 운영, 법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혁신조직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정책적 변화를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법 제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브랜딩 지원

혁신조직이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선명하게 소통하고, 공감과 신뢰를 모을 수 있도록 브랜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조직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6) 영상 제작 지원

혁신조직이 다루고 있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회문제와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실질적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7) 기부금 매칭 지원

비영리조직에게 있어 ‘기부자’는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단체의 미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파트너’ 이자,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성장의 ‘촉매자’입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매칭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혁신조직이 만드는 임팩트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응원합니다.

Part 2

임팩트그라운드의 사회변화경로와 임팩트 트리거

IMPACT TRIGGER

2025
IMPACT GROUND
PERFORMANCE
REPORT

2024 Impact Ground Performanc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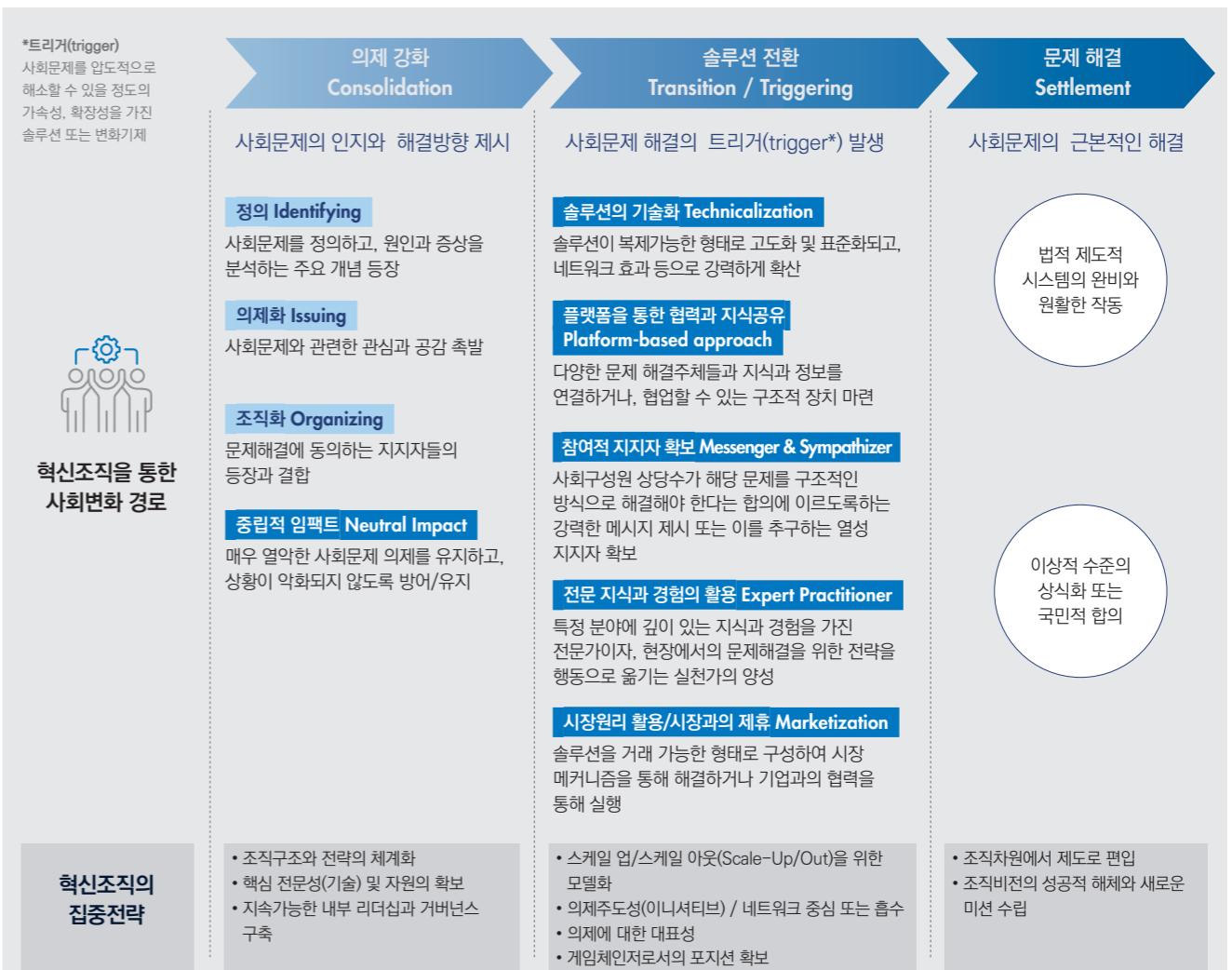
15

1 사회문제 해결과정 사회변화경로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조직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제의 강화(Consolidation)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문제가 처음 인식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조직을 통해 제시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환(Transition) 단계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그 해결책이 빠르게 퍼져 나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Settlement)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국민들이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회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림 2 사회변화경로의
3단계



2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메커니즘 임팩트 트리거(Impact Trigger)

임팩트그라운드가 관찰한 임팩트 트리거는 크게 다섯 가지 혁신적 전략으로 구분되며, 각 트리거의 핵심 내용과 혁신조직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그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 임팩트 트리거
5가지 유형

임팩트 트리거	개념 정의	핵심 요소	사회문제 해결에서의 트리거 역할
솔루션의 기술화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AI, 데이터, 공학적 접근 같은 기술을 직접 도입하거나 새롭게 개발 및 적용	모델화(Modeling), 기술적 구조화를 통한 자동화, 분석, 예측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방식을 혁신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른 지역과 조직에서도 빠르게 확산시키는 재현 및 확산의 촉진제
플랫폼을 통한 협력과 지식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용자, 조직, 기업, 정부 등)와 정보를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	문제 해결 주체를 모아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형성하고, 확산 가능한 구조 마련(개방성, 디자협력, 네트워크 효과)	자원과 참여를 조직해 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확산 및 가속화
참여적 지지자 확보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참여하는 시민·전문가·커뮤니티들의 발굴과 확보	공감, 메시지 확산, 자발적 참여, 행동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솔루션 확산 및 문화적 전환을 일으키는 사회적 에너지의 증폭기
전문 지식과 경험의 활용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서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	전문성의 사회적 환원, 실천적 개입, 지식과 현장간 연결, 제도화 기여	전문성과 실천을 결합한 촉매자로서, 전환(Transition) 단계의 구조화와 제도화를 견인
시장원리 활용 /시장과의 제휴	시장의 수요와 가치 창출 원리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확장 및 지속	참여 유도, 수익구조 설계, 이용자 필요 충족	사회적 선(善)과 개인적 필요를 결합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제고

1) 솔루션의 기술화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 접근 방식을 넘어,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 자체를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IT, AI,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접목하여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실행 가능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조직에서는 기술 기반 솔루션을 통해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합니다.

솔루션의 기술화는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새롭게 조직하고 개선하는 혁신적 접근입니다.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반복적 검증과 개선 과정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확장 가능성과 재현성을 갖춘 모델을 제공하여,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소



적용사례



CASE 1. 서울재활병원

AI, 데이터 기반 맞춤 정밀 재활을 향한 도약

RISE(Rehab Impact Services for Everyone)



서울재활병원은 신체 기능 회복을 넘어 환자와 가족을 포함한 전인적 재활을 목표로 하는 재활전문병원입니다. 사람 중심, 가족 중심, 사회복귀 중심의 재활을 통해 국내 재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선도적 재활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은 지역사회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재활의료의 사회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은 국내 최초로 환자 생애 주기별 재활의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내 유일의 청소년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 접근을 통해 환자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문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2006년 국내 최초로 청소년 재활치료를 시작하며, 청소년 맞춤 재활치료실과 전담 치료팀을 운영해 장애 청소년 통합 재활치료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병원은 외래 치료와 입원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소아 낮병동을 개발하여 충분한 치료 시간을 확보하고, 2013년에는 청소년 낮병동까지 확대 운영하며 입원과 외래 치료를 연계한 효율적 재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RIGGER 기술화



Problem

재활치료의 단절성 및 수용규모 한계,
예방적 접근 부족

IG 지원

기준 성과
전인적 재활치료 선도

단기 성과
상시적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디지털 재활의료시스템 구현

중장기 성과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질병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

장기 성과
모든 재활병원과 장애인, 지역사회가 재활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방

Goal

최고의 디지털
재활의료헬스케어 서비스 향유

Trigger Factor



서울재활병원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재활치료가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환자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AI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정밀 재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활의료는 단절된 진료, 긴 대기시간, 증상 중심의 표준화된 치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소아재활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분야이며, 공공병원도 성인 위주로 운영되어 소아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은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면서 치료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증상 중심에서 환자 개인 맞춤형 정밀 재활 치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재활병원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재활이음 앱'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재활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환자와 가족은 일상 속 치료활동과 상태를 기록해 병원에 공유하는 상시적 연결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난 24년 간 축적해온 장애아동의 건강정보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 아동·청소년의 고유한 생애주기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AI 기술을 더하여 환자건강 정보의 측정, 통합, 분석 자동화를 통한 장애아동 위험요인 예측과 최적화된 재활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3 서울재활병원의 RISE 플랫폼 소개



RISE(Rehab Impact Services For Everyone) 플랫폼 개발 진행

*디지털재활플랫폼 RISE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활 단절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RISE-RM(Rehab Medicine) 플랫폼 및 챗봇 개발

- '재활플래너'와 '마이재활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나이주' 챗봇 도입
- 현업 기반의 시민 개발자와 IT 전문가 협업으로 플랫폼 개발 완료



RISE-CR(Clinical Research) 도입 준비

-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디지털 재활치료 모델 연구 진행



서울재활병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 기존 자료와 신규 생성될 자료의 데이터화를 위한 SW 중심의 인프라 구성



시민개발의식(Citizen Development-ship)의 스케일 업(Scale-up)

- 애자일(Agile) 방법론 개발진행 팀 구축
- 시민개발의식 소개 및 시민개발자 양성



인프라 구축

- 척추측만증 연구를 위한 방사선 검사 장비 도입
- HS 온프레미스 서버 및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CASE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안전 공공IT솔루션_제품안전관리지원시스템 개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며, 산업현장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치대립적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과학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분석 장비와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추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진단에서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노동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적 의사결정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위험 관리에 있어 공공적 대안 실행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와 산업계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실질적 정책과 현장 개선을 이끄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rigger Factor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분산된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하고, 복잡한 검증 과정을 자동화하여 기업과 정부, 소비자 등 누구나 손쉽게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IT 솔루션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전 세계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통합·재해석하여 국내 화학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실질적 해결 도구를 제공하는 IT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정부, 기업, 시민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소비·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며, 진화하는 민간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부의 정보 검증과 공개를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합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CHEmical Product Management system)에 제품 성분과 함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소의 독성정보 DB와 결합해 원료 안정성과 제품 유해성을 평가합니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은 추가 비용이나 서류 없이 전 성분 공개와 원료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자체 분석 인프라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성분 함량이 낮은 우수 제품 심사도 자동화되어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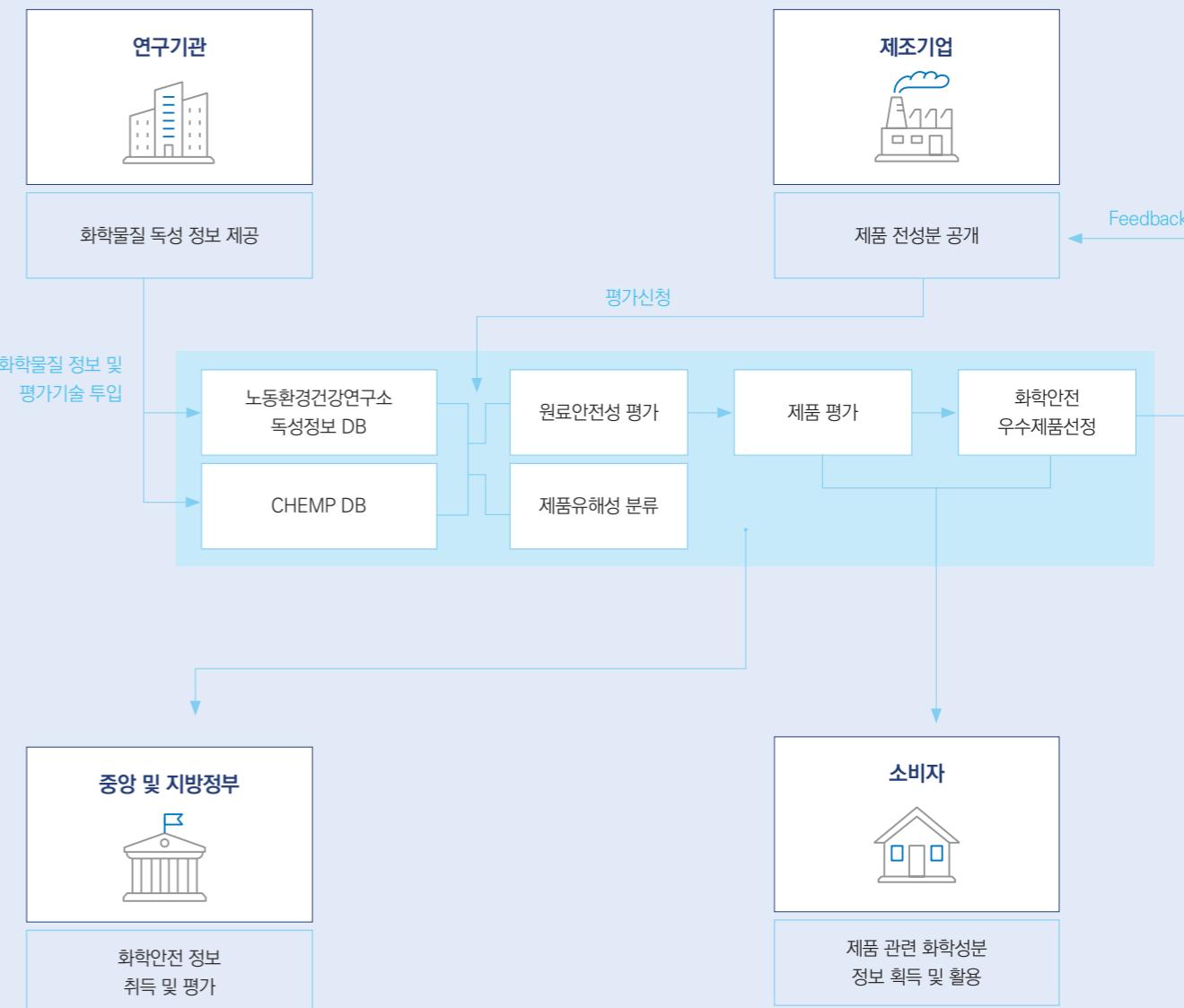
화학물질우수저감제품 선정 사례

와니라이프는 2024년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참여 기업으로, 방향제 및 탈취제를 생산하는 제조사입니다. 와니라이프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화학안전 공공IT솔루션(제품안전관리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5년 9월 기준, 총 203개 제품의 원료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총 54개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시스템 내 화학물질우수저감제품 스크리닝 기능을 활용하여 25개의 화학물질 저감 제품을 개발하고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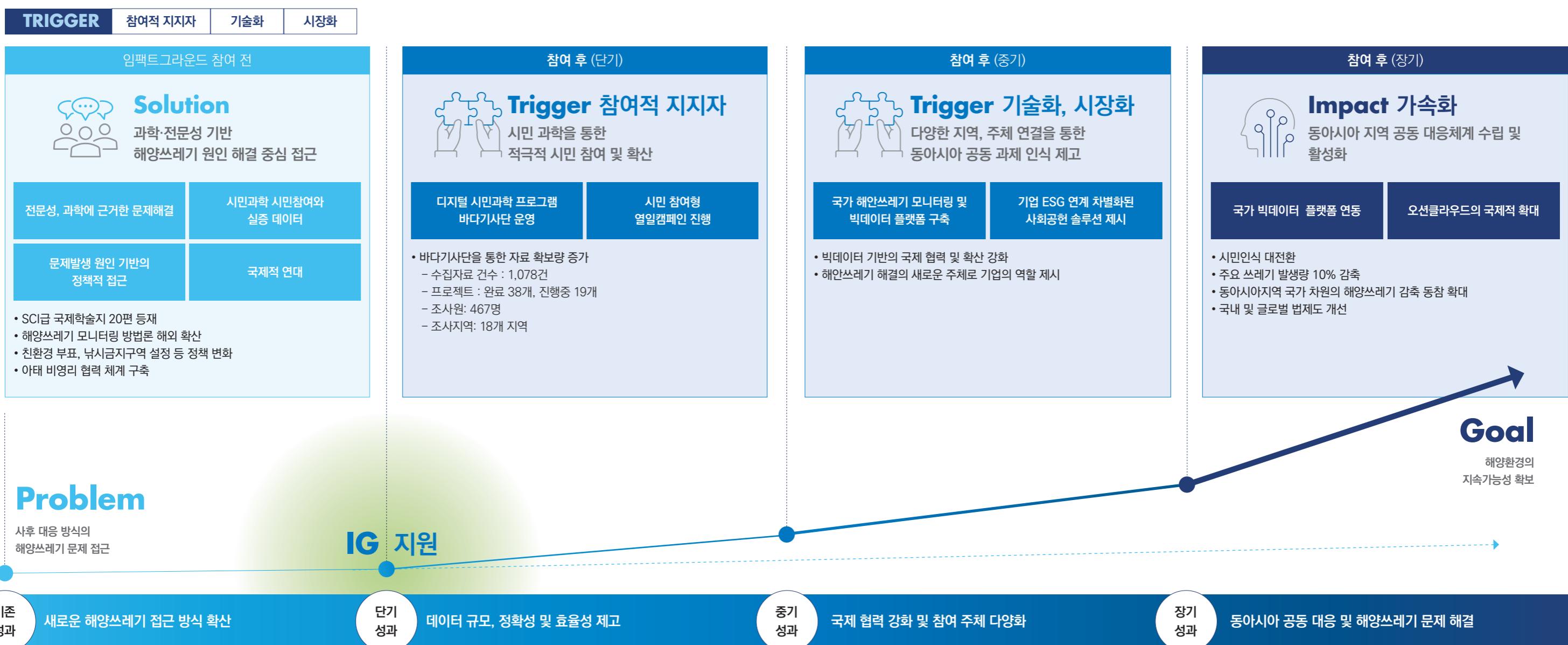
제 83호 셀클린즈 디퓨저 화이트 가을정원

그림 4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화학안전 공공IT솔루션 운영 구조



CASE 3.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3차원 디지털 데이터 조사 프로그램 '바다기사단'과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시민과학의 혁신과 확장



Trigger Factor



오션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다양한 임팩트 트리거(Impact Trigger)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시민 참여형 해양조사에 디지털 분석 기술을 결합해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정확성,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해 협력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연구조사와 3차원 디지털 분석기술의 결합

오션은 임팩트그라운드 참여기회를 통해 기존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바다기사단 사업으로 확장하고, 공중-수중-해안-도심 등 3차원 공간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시민과학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 **스카이나이츠:** 드론을 이용하여 바닷가의 쓰레기나 바닷가 시설을 촬영하고 쓰레기의 양과 실태를 기록
- **아쿠아나이츠:**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발견한 쓰레기나 쓰레기에 걸린 생물, 산호초 등을 사진으로 기록
- **테라나이츠:** 스마트폰으로 바닷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촬영하고 부피를 추정, 주변의 중요한 발생원인과 주요 쓰레기를 보고
- **어반나이츠:** 도심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감시하고 스마트폰으로 배수구를 따라 사진을 촬영한 뒤 정보를 올리면 AI가 사물을 인식하여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자동으로 식별

이렇게 휴대전화부터 드론, 수중카메라 등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온라인 빅데이터 플랫폼인 ‘오션 클라우드(Ocean Cloud)’에 모이고 국내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쓰레기의 위치, 사진, 무게, 종류별로 즉각적으로 자동 분류, 분석되어 연구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간적 한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오션 클라우드(Ocean Cloud)’의 영어 버전을 마련하여 바다기사단 활동과 데이터 수집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오션은 ‘신남방 바다공동체(EASICO) 워크숍’을 통해 ‘AI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시민과학’을 소개하였으며, 국제행사에서 도심 쓰레기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춘 어반나이츠 앱 사용법을 시연하고 현장에서 테스트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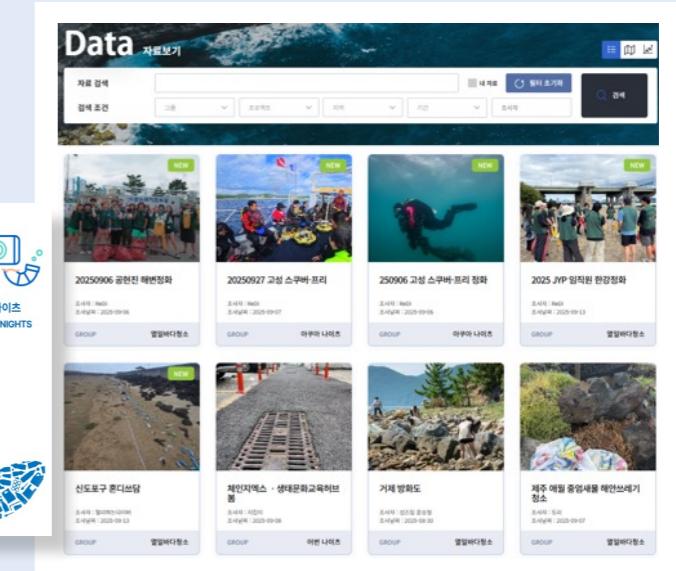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자 발굴

오션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해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10가지 쓰레기 유형을 선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열일캠페인’이라 명명하고, 주요 쓰레기 발생량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범위의 집중화와 구체적인 목표 제시는 시민 참여의 성과를 빠르게 가시화하여 참여 지속성을 높이고, 변화에 대한 성취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화와 시장화의 결합 (기업 사회공헌 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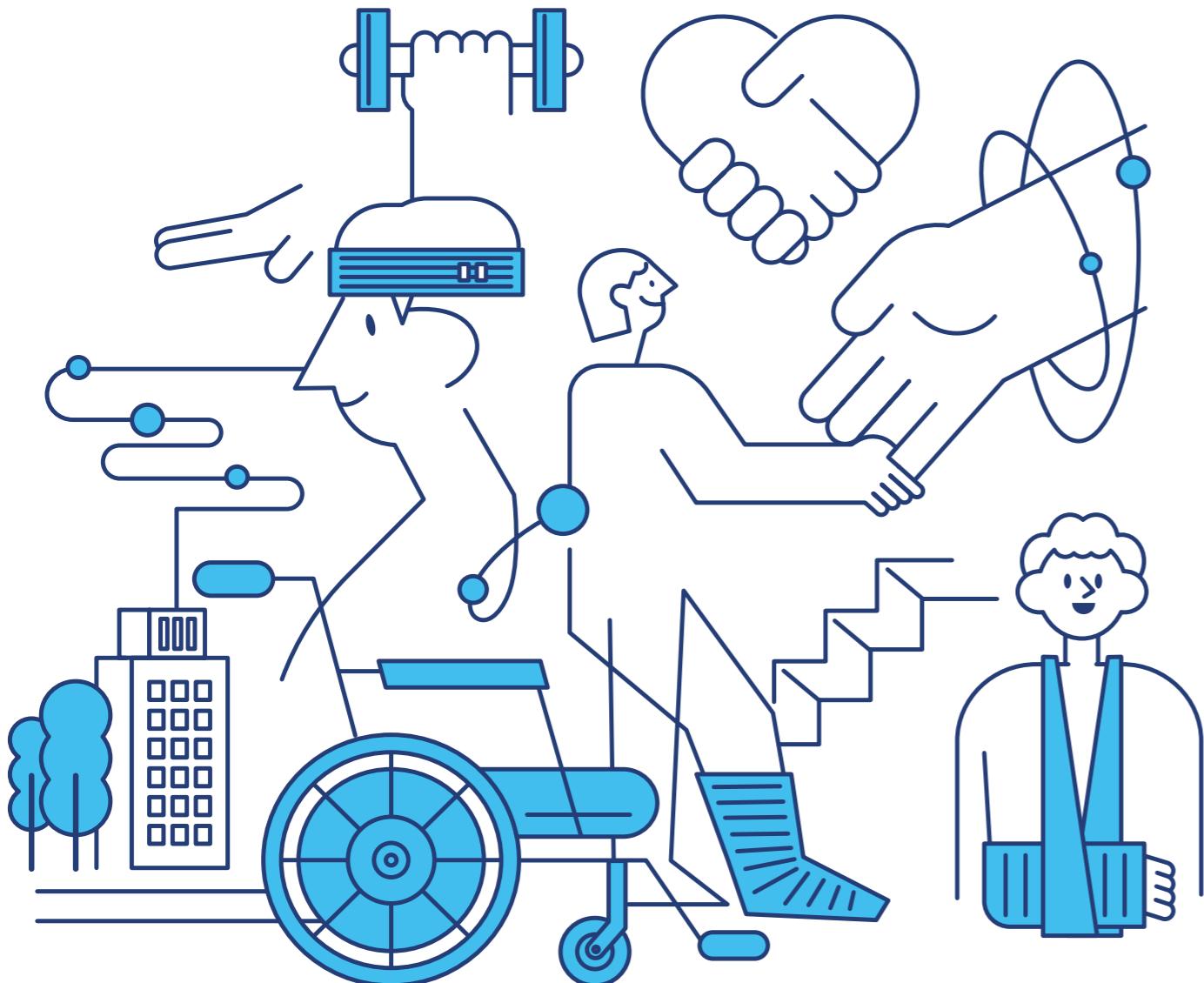
앞서 소개한 솔루션 기술화는 기업 참여를 촉진하는 ESG 기반 활동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기사단 앱 내에 ‘열일바다청소그룹’ 기능을 만들어 기업 단위에서 직접 쓰레기 조사와 연안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참여로 모아진 데이터를 ‘생태계 영향 지수 측정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 ESG 실천성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봉사활동과는 차별화된 기업 참여형 사회공헌 모델로, 기업들이 정량적 성과 보고를 원한다는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ESG 협력 확대를 통해 오션은 정부 용역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 KT&G 등 기업들이 열일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서울 ESG 동행 플러스 페어 등을 통해 기업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촉진하였습니다.

그림 5 오션의 스카이나이츠와 바다기사단 화면



2) 플랫폼을 통한 협력과 지식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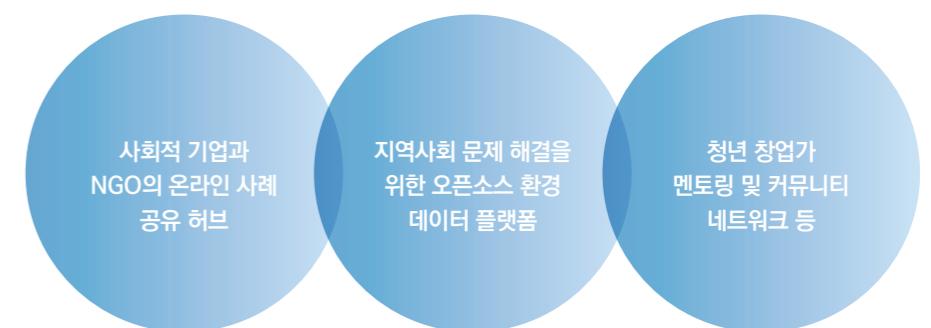
플랫폼은 다양한 사회혁신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경험을 누적 및 교환하고, 공동으로 문제 해결 전략을 탐색할 수 있는 장입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참여 조직들이 서로의 학습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와 집단적 지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소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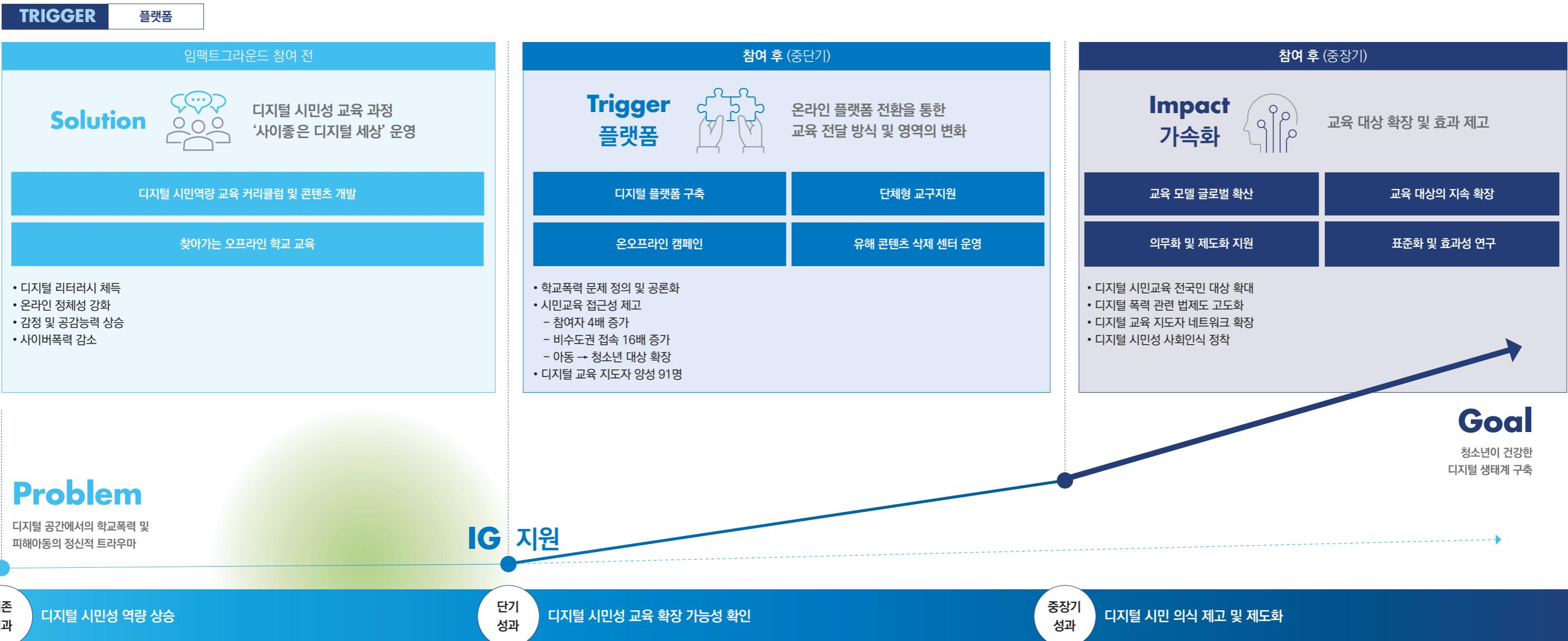


CASE 4. 푸른나무재단

교실 밖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플랫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드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문제를 ‘보이지 않는 개인의 일탈이나 따돌림과 같은 그저 심한 장난’이라는 인식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자 모두의 책임’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학교폭력의 특성과 피해의 실태를 가시화하고 공론화하는 문제 제기를 통해,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도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나무재단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이 혐오 표현과 사이버 괴롭힘을 자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도록 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015년 카카오임팩트와 협력하여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 출범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에티켓 교육이 육설 금지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규범 준수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시간·예산 등의 구조적 한계로 온라인 학교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전국 726개 학교, 4,713개 학급, 11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결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시민성 전 영역에서 유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모든 학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정체성 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푸른나무재단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청소년들의 온라인 책임감과 배려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rigger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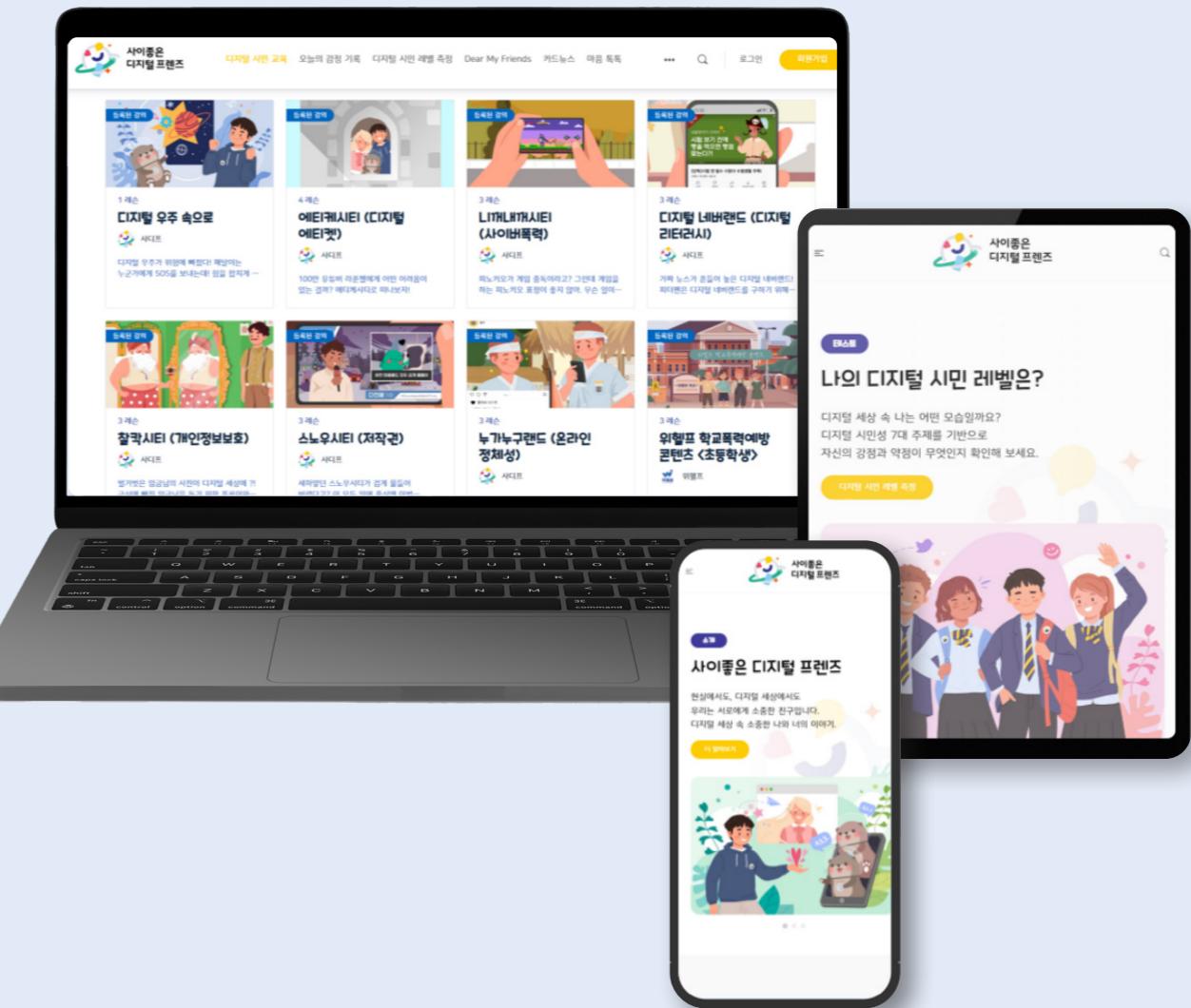
푸른나무재단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이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교육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교육 모델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임팩트그라운드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의 접근성과 확산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온라인 전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는 네 가지 핵심 활동을 추진합니다. 첫째, 전국적 확장이 가능한 디지털 시민성 온라인 플랫폼 구축, 둘째, 단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구 지원, 셋째, 디지털 시민성과 사이버폭력 관련 온·오프라인 캠페인, 넷째, 디지털 공간의 유해 콘텐츠 대응과 삭제를 포함한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또한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상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연수와 콘텐츠 개발을 병행하여 디지털 시민성 역량 강화를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재단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돋고, 주변 어른들이 그 여정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2024년에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확산과 운영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6 푸른나무재단의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CASE 5. 세상을품은아이들

회복 추적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 (Restoration Tracking System, RTS)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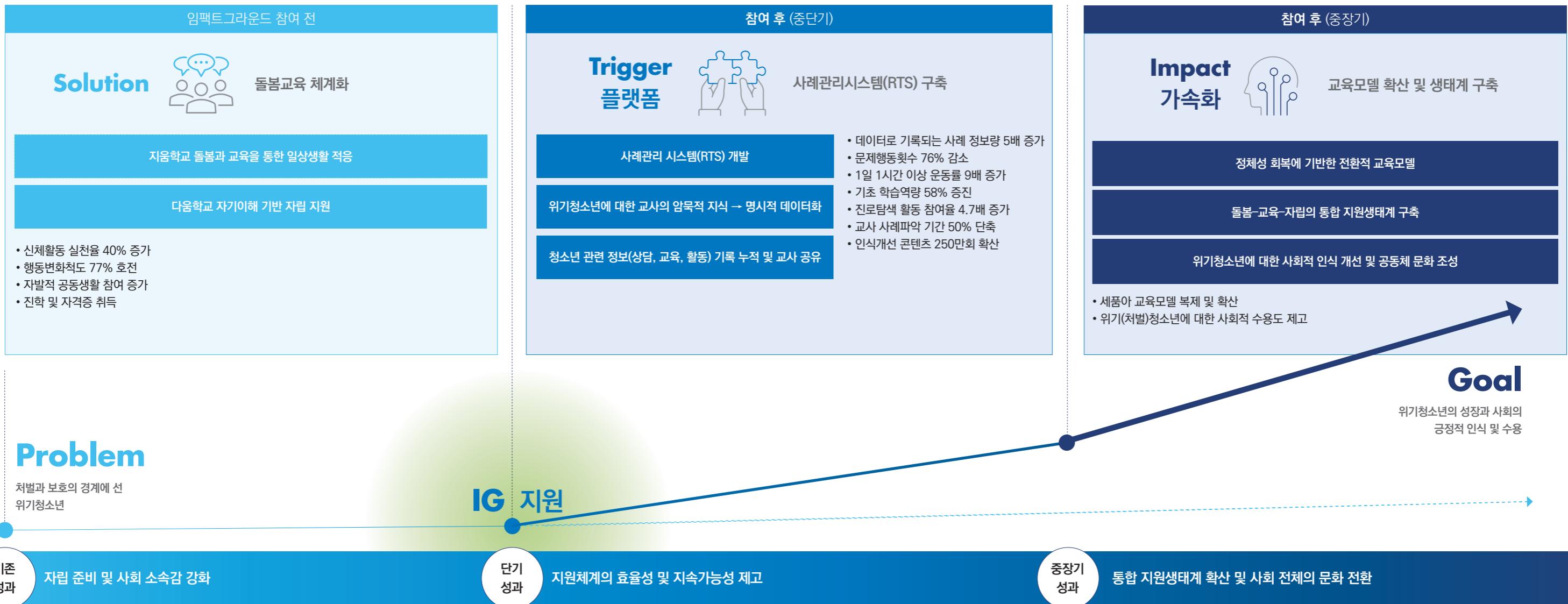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세풀아)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범법청소년 중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가치를 회복하며, 이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풀아는 청소년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회복, 학업·진로 지원,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풀아는 “정체성의 변화가 삶의 변화다(Transform Identity, Transform Lives)”라는 모토 아래 지움학교와 다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움학교:** 세풀아 초기 6개월 교육 과정으로, 과거 습관을 멈추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생각하는 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 **다움학교:** 지움학교 수료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년제 대안교육 과정으로, 자립교육에 중점을 두며, 각 아이의 배움 속도와 상황을 존중합니다. 진정한 자립은 단순한 ‘홀로서기’가 아닌 자기 이해와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공동체 속에서 ‘나다움’과 ‘우리다움’을 실현하는 삶을 뜻합니다.

TRIGGER 플랫폼



Trigger Factor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치유와 자립에 이르는 과정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청소년과 교사가 체계적인 정보기반 위에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사례관리시스템(RTS)을 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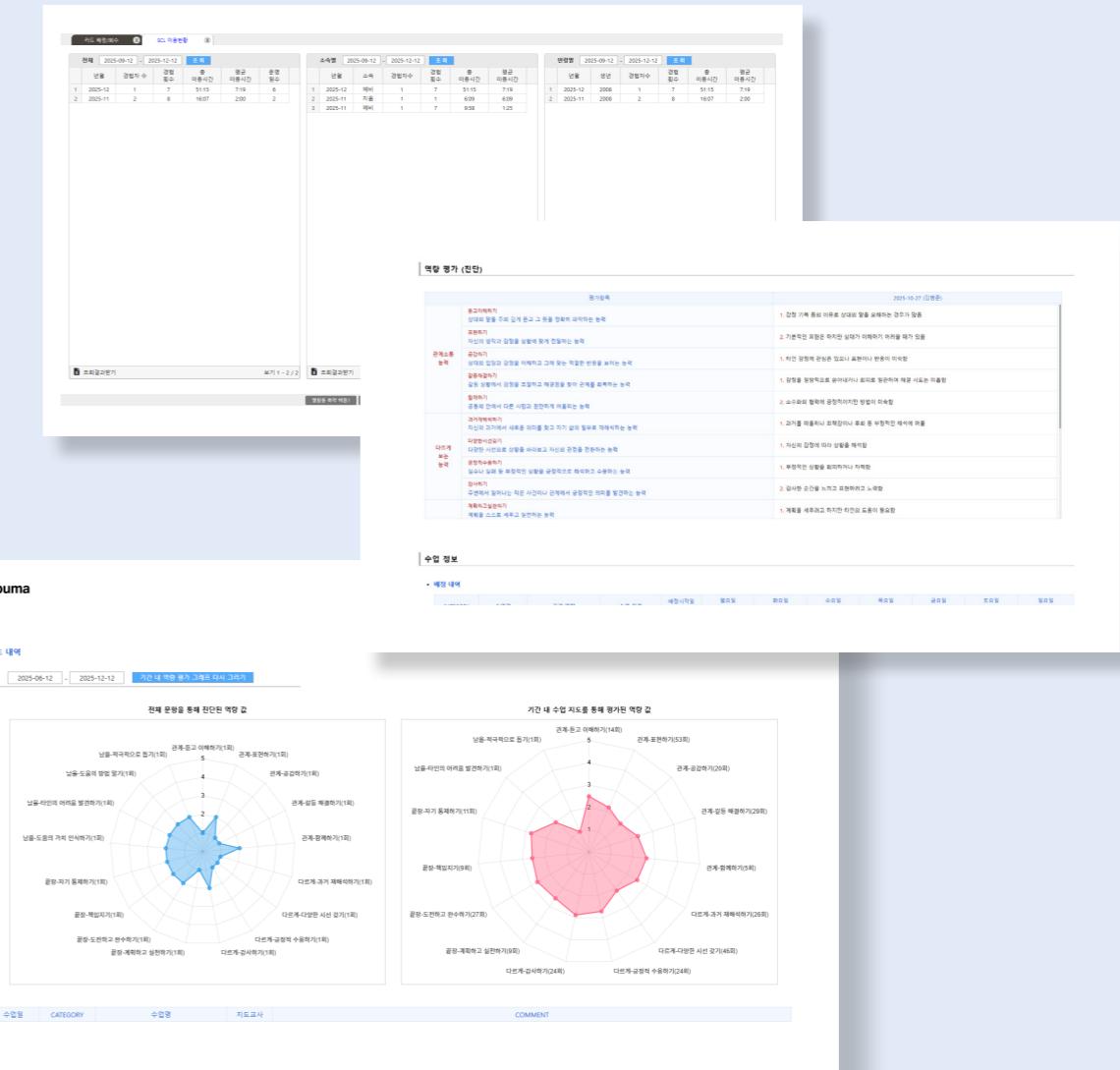
세풀아는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아이들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과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시스템(RTS, Restoration Tracking System)을 개발했습니다. RTS는 그동안 개별 교사의 기억과 기록에 의존해 관리되던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한 플랫폼으로, 아이들의 생활과 학습, 상담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매일 RTS에 접속해 수업 내용, 상담 기록, 생활 관찰 등 아이들과의 모든 경험을 입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회복 경로를 설계합니다. RTS에는 법원 판결, 범죄 유형, 건강·진료 이력, 심리검사, 주요 관심사와 욕구, 위기 상황, 상담 이력, 시간표, 수업 태도 등 다양한 정보가 구조화되어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단순한 관찰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의 성격·진로·기질·적성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변화 과정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RTS는 위기청소년 교육과 회복 지원의 과학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며, 개별 아이에게 최적화된 지지와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

RTS도입을 통해 청소년 사례 관리 정보량은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새로 배치된 교사가 한 아이의 변화과정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에서 1.5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림 7 세상을품은아이들의 RTS(사례관리시스템) 화면



3) 참여적 지지자의 발굴과 참여

사회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함께 하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여적인 지지자를 발굴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입니다. 참여 조직은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확산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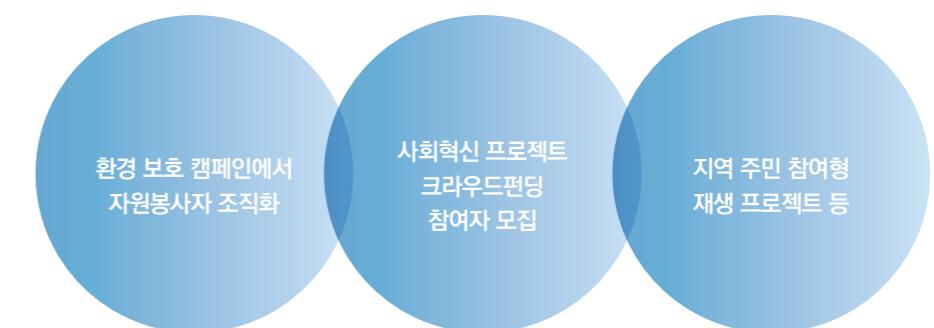
참여적 지지자 확보는 감정과 가치 기반 참여를 촉진하며, 참여자가 자발적 홍보자로 기능하여 프로젝트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지지자의 활동은 프로젝트 확산의 핵심 원동력이 되며, 참여 커뮤니티가 강화될수록 사회문제 해결의 지속성과 깊이가 증가합니다. 단기적 참여를 넘어 장기적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요소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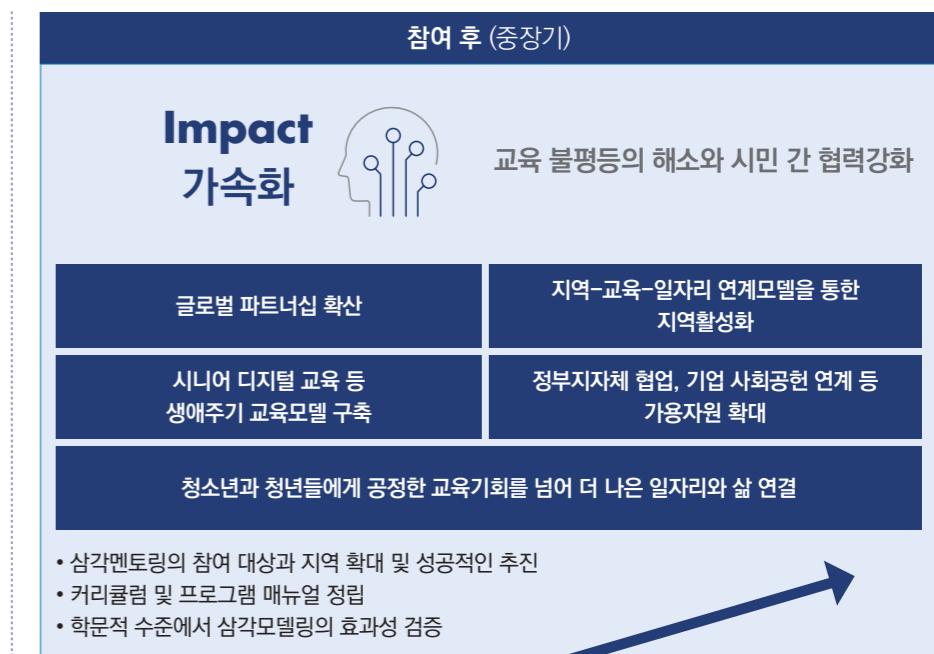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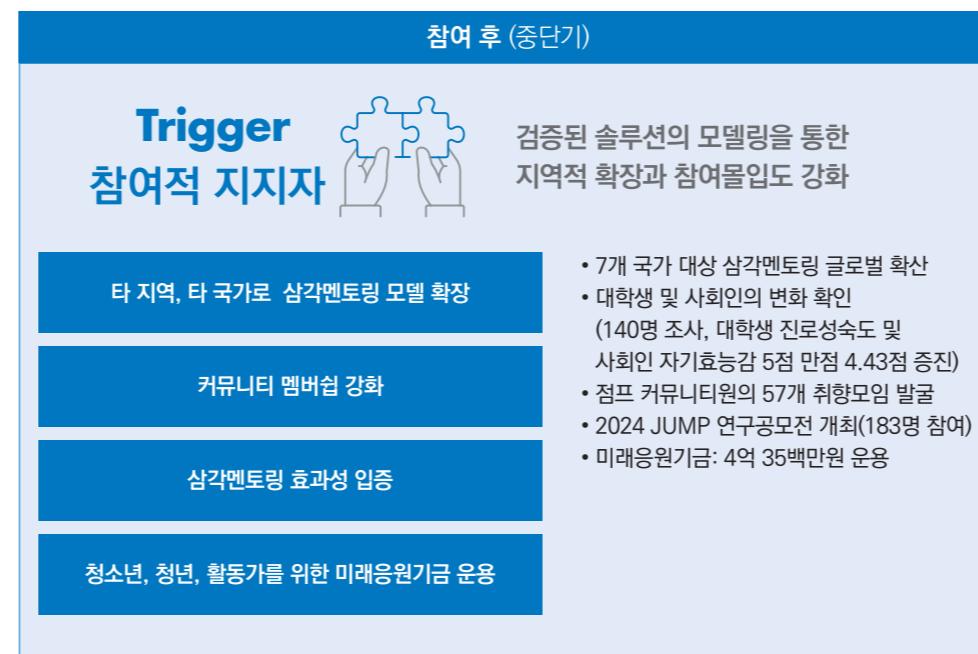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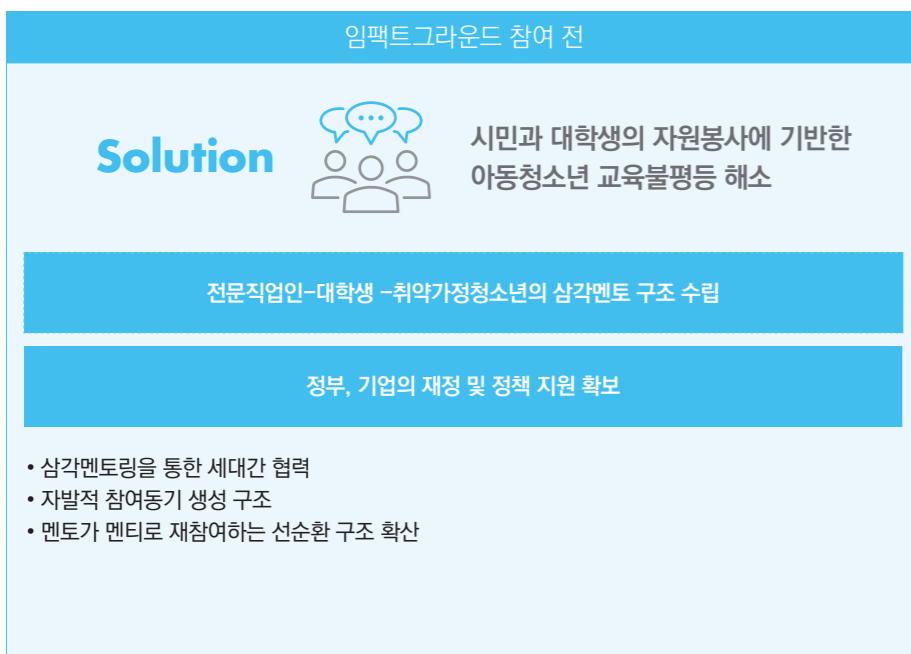


CASE 6. 점프

삼각 멘토링, 점프의 비전을 함께 키우는 연결고리

JUMP

TRIGGER 참여적 지지자



Problem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IG 지원

기준
성과

삼각멘토링 체계 구축

단기
성과

삼각멘토링 참여자 몰입을 통한 교육모델 확산

중장기
성과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대안적 교육 모델 정착

점프는 경제적·지리적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포용인재를 양성하여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청소년-대학생-사회인'이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대학생은 멘토로서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고, 사회인은 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돕습니다. 나누는 동시에 배움을 얻는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모두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다자간 협력모델을 통해 교육, 청년, 기회격차 등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측정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프는 정부·기업·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섹터별 파트너십을 통해 체인 멘토링 모델의 효과성과 확장성을 입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Trigger Factor

JUMP

점프는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삼각 멘토링'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대상 교육모델로서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점프의 사회변화 핵심 동력은 참여적 지지자들의 발굴과 참여입니다. 점프의 대학생 봉사자는 활동 종료 후에도 알림나이로 남아 점프와 관계를 이어가며, 일부는 사회인 멘토로 성장해 다시 참여합니다. 실제로 수료자의 98.9%가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했고, 60% 이상이 향후 사회인 멘토로 활동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인 멘토 역시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멘티의 성장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 의지를 높이면서 참여적 지지자가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멘토의 90% 이상이 점프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점프는 임팩트그라운드 참여기회를 통해 '삼각 멘토링'의 결합력과 몰입도를 강화하는 커뮤니티 멤버십 장치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복제 가능한 형태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불평등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점프의 비전에 대한 참여적 지지자들을 국제 사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에서 성공적인 모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8 점프 활동 사진



4) 전문 지식과 경험의 활용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참여 조직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전략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언자나 자문 역할을 넘어, 지식과 행동을 결합하여 프로젝트 실행력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 및 검증합니다. 전문성과 실행력이 결합되어 해결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조직이 추진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임팩트가 강화됩니다.



주요 요소



적용사례



CASE 7.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적 약자와 공익을 위한 법률 전문성을 가진
인권 변호사 생태계 형성**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2004년 설립된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공익법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개별 인권침해 사건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익기획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권 기준을 높이고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활동이 개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법률가, 연구자, 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교류하고, 공익법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익법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익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법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TRIGGER 전문 지식과 경험의 활용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전	
Solution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익법률지원
개별 인권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공익, 기획소송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법률가, 연구자, 활동가 등 공동네트워크 구축	
공익법 확산 (공익변호사 지원, 일반인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71건(2004년~2022년)의 공익소송 사건 법적 자문, 상담, 사건 지원 62개 인권단체에 변호사 파견 인권 관련 연구 추진, 유관 네트워크 구성,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 등 공익법률 생태계 기반 조성 	

참여 후 (단기)	
Trigger 전문 지식 및 경험의 활용	인권활동과 결합된 공익변호사 양성 및 공익법률활동 고도화
공익소송의 기획력 및 전문성 강화 → 법해석의 변화와 판례를 통한 사회변화 견인	공익인권영역 전문 변호사 및 연구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단체 변호사 파견 및 지역사무소 개소 복수 영역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의제설정 및 해결방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임팩트가 큰 소송 승소 성과 국제인권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성과 공동활동 시스템 구축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 지원체계 구축 	

참여 후 (중장기)	
Impact 가속화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법률가든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공익법 생태계 확장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및 대응으로 법의 보호범위 확장	공익법 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변호, 공익법률서비스 개념의 보편화 일반변호사들의 공익변호활동 활성화 낯선 의제, 복합적 사안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역량과 시스템 구축 시민단체-공익변호사 연계를 통한 인권활동 역량 강화 	



Trigger Factor



공감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인권활동과 결합된 전문법조인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공익법률활동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공익소송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 해석의 변화를 이끌고, 판례를 통해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소송 수행을 넘어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연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공익변호사를 파견하거나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여,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를 보다 밀착적으로 지원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게 되거나,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 소규모 포장 제조업체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듯 사회문제는 여러 문제가 결부되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과 의제 설정을 통해 기준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혁신적 해결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의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법률 활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2024)을 이끌어내며 성소수자 인권의 제도적 진전을 이뤘습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에서 국가배상 소송 1심 모두 승소함(2025)으로써, 난민과 이주민 인권보호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더불어 국제인권센터(2019년 개소)의 온라인 플랫폼 구성을 통해 국내외 인권단체, 변호사, 연구자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정 접수(2024)와 유가족협의회 법률 지원을 하며, 재난피해자 인권옹호 지원체계의 기반을 만들고 공감의 활동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림 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성과 사례



(시계방향으로)

그림 9-1)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협약식(2024)

그림 9-2)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승소(2024)

그림 9-3)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 2심 승소(2025)

그림 9-4)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정 접수 지원(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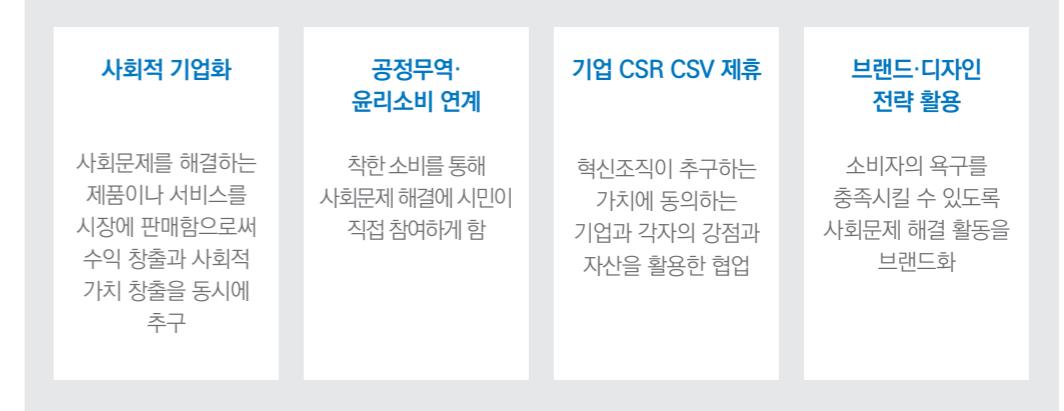


5) 시장원리의 활용 또는 시장과의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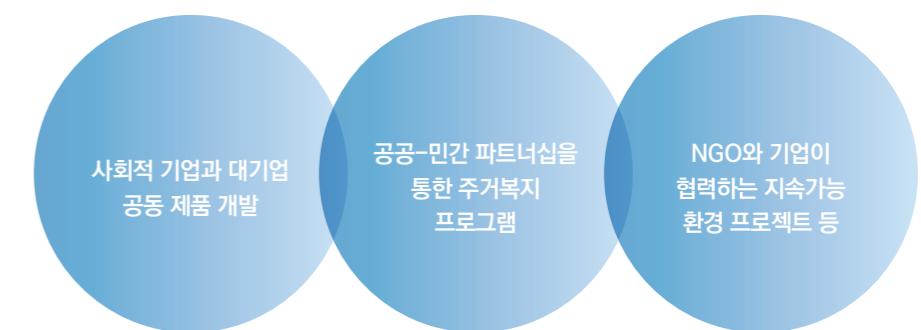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을 당위성이나 이타주의에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이익추구나 시장원리를 자극함으로써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선, 기부, 후원 등 전통적 비영리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원리 활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전략적 협력을 결합하는 접근입니다. 참여 조직은 경쟁, 가격, 효율성 등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자원을 최적화하고, 기업·정부·비영리 등 다양한 주체와 제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합니다.

시장화 및 제휴 접근은 효율적 자원 활용과 성과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또한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 프로젝트의 사회적 임팩트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요소



적용사례



CASE 8. 열린옷장

온라인 쇼핑만큼 간편한 온라인 의류대여 서비스 런칭



TRIGGER 시장화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전

Solution



정장 공유옷장 시스템 운영

정장 기증 캠페인 운영

청년 구직자 중심 정장 대여

- 12년간 22만 건의 정장공유 실측 데이터 확보
- 공유실천·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청년 부담 완화 및 환경보전 기여
- '서울시 취업날개 서비스' 지자체 확산 등 정책 변화에 기여

참여 후 (단기)

Trigger
시장화



온라인 플랫폼 전환을 통한 이용대상 및
공유문화 확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옷장으로 이용대상 다양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대여시스템으로
서비스 확장

의류 공유 서비스 지역접근성 확보

공유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 대중적 확산

- 22만건의 오프라인 실측데이터 기반 온라인 치수 예측 시스템 구현
- 공유옷장의 지역적 접근성 제고
- 취업준비 청년 외 이용대상 확장

참여 후 (중장기)

Impact
가속화



공유의류 서비스의 주류화

국내 의류재활용 시장에 디지털 확장 가능성 제시

의류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 이슈화 및 대안실천 확산

- 동종업계 온라인 서비스 적용 가능성 제시, 재활용의류업계 동반성장 촉진
- 청년 외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응원 전달
- 의류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적 패션문화 확산

Goal

의류공유를 통해
누구나 멋질 권리를 누리는 사회

Problem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및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이슈

IG 지원

기준
성과

청년들의 정장공유를 매개로 한 가치소비의 대표 기관

단기
성과

모두를 위한 정장공유 플랫폼으로 재편

장기
성과

의류 공유가 일반적 패션문화로 정착

열린옷장은 '옷을 나누고 입는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는 의류 공유 플랫폼입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장 공유사업으로 출발하여,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진출을 응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의류 대여를 넘어 '누군가의 옷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유의 힘을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청년 정장대여와 청년응원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정장을 무료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단순히 의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북돋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옷장은 정장 기부 캠페인과 소그룹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회 각계 시민들이 청년의 도전을 함께 격려하도록 연결함으로써 공유경제를 통한 '함께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열린옷장은 의류 재사용과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을 빌려주는 사업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모델이자 대표적인 공유경제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열린옷장의 문제 의식과 실질적인 해결책은, 정부·지자체의 청년 지원 정책·제도 수립으로 이어지며 그 영향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취업 날개 서비스' 등 청년 면접 정장 지원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제도화의 기반으로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규모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임팩트를 창출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한 해결책이 공공정책과 행정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의제로 전환되고,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회혁신 모델입니다.

Trigger Factor



열린옷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온라인 대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의류 재활용 분야의 시장대응 역량과 확장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열린옷장의 실질적 해결책은 정부 제도 변화와 공공 정책으로 이어지며 임팩트를 더 확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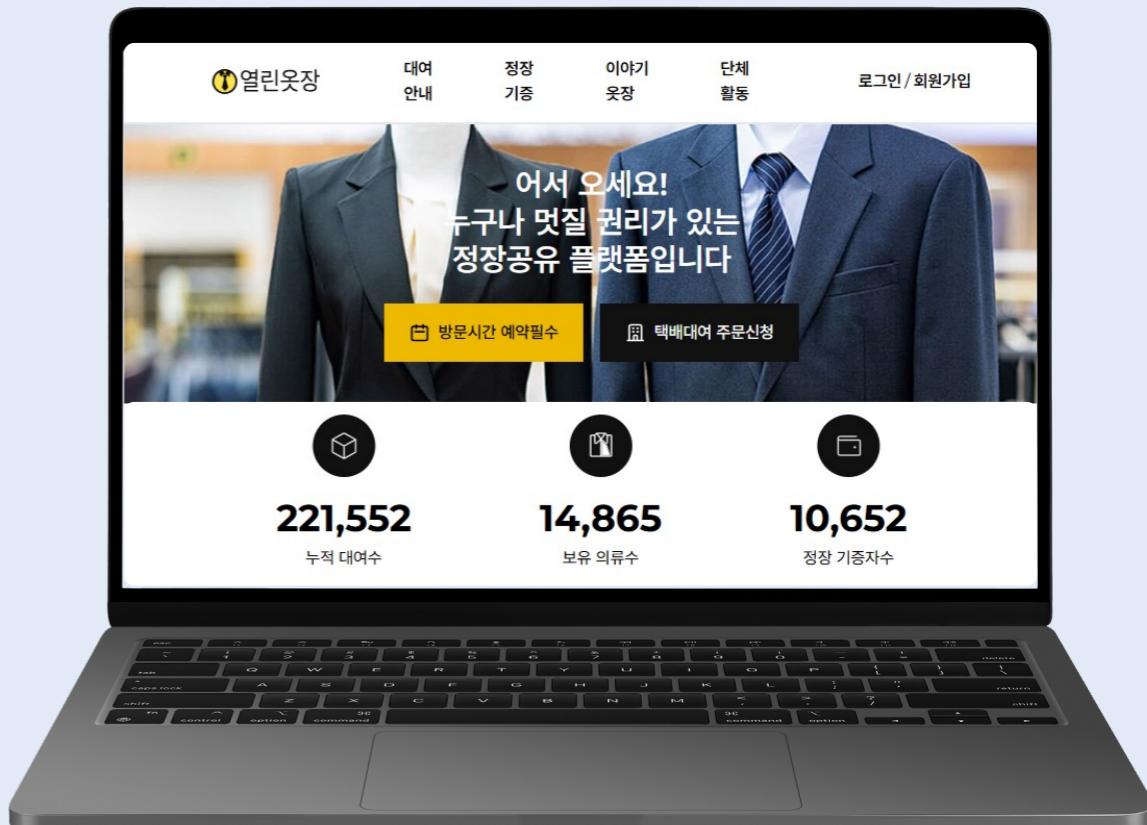


열린옷장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더불어 온라인 대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생활 문화에 맞는 의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 확장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온 22만여 건의 실측 데이터(25년 기준)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류를 제공할 수 있게 한 혁신적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의류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으며, 소비자 만족과 이용률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장 공유사업에서 쌓은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을 청년층을 넘어 특성화고 청소년, 시니어층 등 정장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필요와 개성에 맞는 정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정장 대여시스템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린옷장은 이용 대상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유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며,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림 10 열린옷장의 온라인 의류 공유 시스템 화면



CASE 9. 피치마켓

느린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학습 구독서비스 플랫폼 '피치서가'

피치마켓은 모두가 정보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해력과 인지능력이 낮은 느린학습자와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선천적 또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기존 정보와 콘텐츠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쉬운 글 도서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들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서울시 내 9개의 '시끄러운 도서관'을 개관하여 발달장애인들이 마음껏 움직이고 소리 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수학급 대상으로 도서 배포와 교사 연수를 통해 느린학습자가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수원 지역에 느린학습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 실험으로 '511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읽기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한 '한 권 읽기'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연구와 교육자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쉬운 글 도서와 참여 활동을 통해 학습 기회를 확장합니다. 공교육이 미처 다루지 못한 틈새영역을 전문화하며, 교육·복지·사회혁신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의 새로운 시장과 임팩트 투자기회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PEACH MARKET :

TRIGGER 시장화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전	
Solution	
	느린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콘텐츠 제작
쉬운 글 콘텐츠 제공	주제중심교육 방법론 적용
특수교사 직무 연수 및 멘토 양성	
느린학습자의 학교밖 활동공간 '시끄러운 도서관'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느린학습자 2천여명 교육 진행 6개월 이상 참여자의 문해력 14% 향상 '시끄러운 도서관' 서울시 내 9개 개관 특수학급 국어교과서에 피치마켓 도서 수록 	

참여 후 (중단기)	
Trigger 시장화	
	디지털화 되고 있는 교육시장변화에 대응,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AI 도입
느린학습자와 교육자를 위한 디지털 유료 학습 플랫폼 '피치서가' 운영	특수교육용 맥락적 학습, 대화 학습, 탐구학습 표준화
느린학습자 교육센터 511 MARKET 마련(수원)	교육자 양성 커리큘럼 및 자격증 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규모 증가 및 맞춤형 학습 실현 가이드라인 발간 및 교육자 양성 45명('24년)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모임 교사 137명 참여 	

참여 후 (중장기)	
Impact 가속화	
	느린학습자의 사회적 포용 및 정보 및 학습 격차 해소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확산	거점별 교육센터 설립 및 활성화
교육종사자 전문화 및 쉬운 글 창작자 양성	느린학습자 교육자격 인증, 교과서 검수과정 등 제도적 변화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쉬운 글 문화의 주류화, 모든 공익적 정보는 쉬운 글 번역 의무화 관련 장애인구 중 30% 피치마켓 앱활용 이용자 확보, 느린학습자 교육 커뮤니티 확산 느린학습 교육종사자 전문화 과정 운영 	

Goal

느린학습자의 교육평등,
정보평등 실현

Problem

개별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육 콘텐츠

IG 지원

기존 성과

쉬운 글 콘텐츠 생산 및 교육방법 개발

단기 성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확인

장기 성과

느린학습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및 정보이용 프로세스 확립

Trigger Factor

피치마켓은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해 기존 도서중심의 교육콘텐츠에서 나아가 AI기능을 결합한 구독형 서비스 '디지털 학습 플랫폼, 피치서가'를 개발하였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promotional offer for a 6-month subscription. It includes a 40% discount from 180,000 won to 108,000 won. The offer is for 'Peach Market Peach Reader' customers. It details various points and discounts available through the service.

피치마켓은 온라인 기반 운영으로 교육 접근성과 확장성에서도 강점을 갖습니다. 실제로 피치서가를 이용하는 느린학습자는 연간 12,000명 이상으로, 오프라인 교육 대비 6배에 달하며, 800여 학교 및 교육기관과 1,600여 교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치마켓이 추구하는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느린학습자 교육 커뮤니티가 확산되어 학습자의 일상 속 소외 없는 삶을 지원하고, 제도적 변화를 통해 정보 격차 없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며, 나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교육과 정보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느린학습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 11 피치마켓의 피치서가 소개 화면

The composite image includes:

- Top right:** A large screenshot of the Peach Market app interface showing a storybook page with a girl reading and a smartphone displaying the app's main menu.
- Middle left:** A graphic of an open notebook titled "쉬운 글 활용한 교육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using easy-to-read text) with a numbered list from 1 to 6.
- Bottom right:** Three separate sections: "핑크 리본 : 가장 쉬운 난이도" (Pink Ribbon: easiest difficulty), "그린 리본 : 쉬운 난이도" (Green Ribbon: easy difficulty), and "블루 리본 : 적정한 난이도" (Blue Ribbon: appropriate difficulty).

Part 3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의 2023~2024년 주요 성과

2025
IMPACT GROUND
PERFORMANCE
REPORT

2024 Impact Ground Performance Report

1 임팩트그라운드의 임팩트프레임과 측정지표

앞서 살펴본 사회변화경로와 임팩트 트리거가 각 혁신조직이 만들어 낸 임팩트 변화와 확장의 역동성을 시계열로 파악한 종단적 성과라면, 임팩트프레임은 동일한 프레임에 기초한 공통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참여조직의 성과를 측정, 합산한 획단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임팩트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첫째, 조직의 미션에 따라 사회문제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와 구제, 회복 등 수혜자 편익을 발생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임팩트입니다. 둘째, 해당 사회문제를 둘러싼 사회주체들, 즉시민과 기업, 정부의 인식과 행동, 관행과 정책을 변화시켜 사회구조 및 문화를 개선시킨 임팩트입니다. 셋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지적 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시민적 자산을 구축하는 임팩트입니다.

임팩트프레임은 각 항목에 대한 정량적 공통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를 수집하여 혁신조직의 활동과 영향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표 4 임팩트 프레임 공통
지표 체계

변화지점		변화의 내용	공통 지표
사회주체의 변화	수혜자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가족·커뮤니티 등의 문제상황 해결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지원관련 사업 추진횟수 • 혁신조직활동 수혜자의 수 • 수혜자 지원규모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지역 생태계의 피해상황 개선과 해소 및 생태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개선량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개선, 사회변화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 • 시민인식개선 또는 시민참여형 사업 운영 횟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자기인식과 의사결정 변화, CSR/ESG 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변화 생산방식 또는 서비스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 횟수 (언론대응, 의견 제시 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관행을 변화시킨 기업 수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제도·정책 형성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변화 정책 및 제도 설치를 위한 활동 건수 • 정책 및 제도 변화 건수
	사회자본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자원봉사자·관련 연구자 및 조직의 증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노하우·지식 아카이브 등의 축적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모집 규모 • 활동가 또는 봉사자 규모 • 연구보고서 및 의제발굴 등 지적 자본 생산
사회자본의 변화	인적·지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자원봉사자·관련 연구자 및 조직의 증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노하우·지식 아카이브 등의 축적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모집 규모 • 활동가 또는 봉사자 규모 • 연구보고서 및 의제발굴 등 지적 자본 생산
	경제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전 및 자산 형성과 증가(기금, 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 기금 및 후원금 모금액 •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을 위한 공간 확보 규모
사회자본의 변화	사회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및 영역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개인 및 조직 내외의 인정·지지·호혜·협력 수준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 수

2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는 혁신조직의 주요 성과

1. 수혜자의 변화

2023~2024 성과 합계

• **102만 명**

(사업 수혜 인원의 합계)

- 사업 운영 횟수 **535,500 회**
- 서비스 수혜 인원 **1,019,039 명**
- 수혜 금액 **4,620,256,160 원**

**수혜자의
변화**

사람

환경

• **11.2만 kg**

(오션, 해양 쓰레기 수거)

• **92억 원**

(열린옷장, 경제적 가치)

- 공유옷장 이용 통한 환경적 가치 약 **20억 원**
- 공유옷장 이용 통한 경제적 가치 약 **72억 원**
- 산양 보호 면적 **10,284ha**
- 웅담채취용 사육곰 구출 **4마리**
- 거문도(서도) 해양생물 서식밀도 증가율 **50%**
- 거문도(서도) 종합오염도 감소율 **37%**
- 남산 투명 방음벽 새 충돌 사고 감소율 **100%**
- 해양 인증 부표 전환율 **100%**
- 해양쓰레기 수거량 **112,164kg**

2023 → 2024 성과 증가율

사업 수혜 인원

1.3배2023
44만 명2024
57만 명

▲ 13만 명

해양쓰레기 수거량

1.6배2023
4만 kg2024
7만 kg

▲ 2.6만 kg

임팩트그라운드 전·후 성과 증가율

수혜 금액

46.2억 원**2.2배****21.2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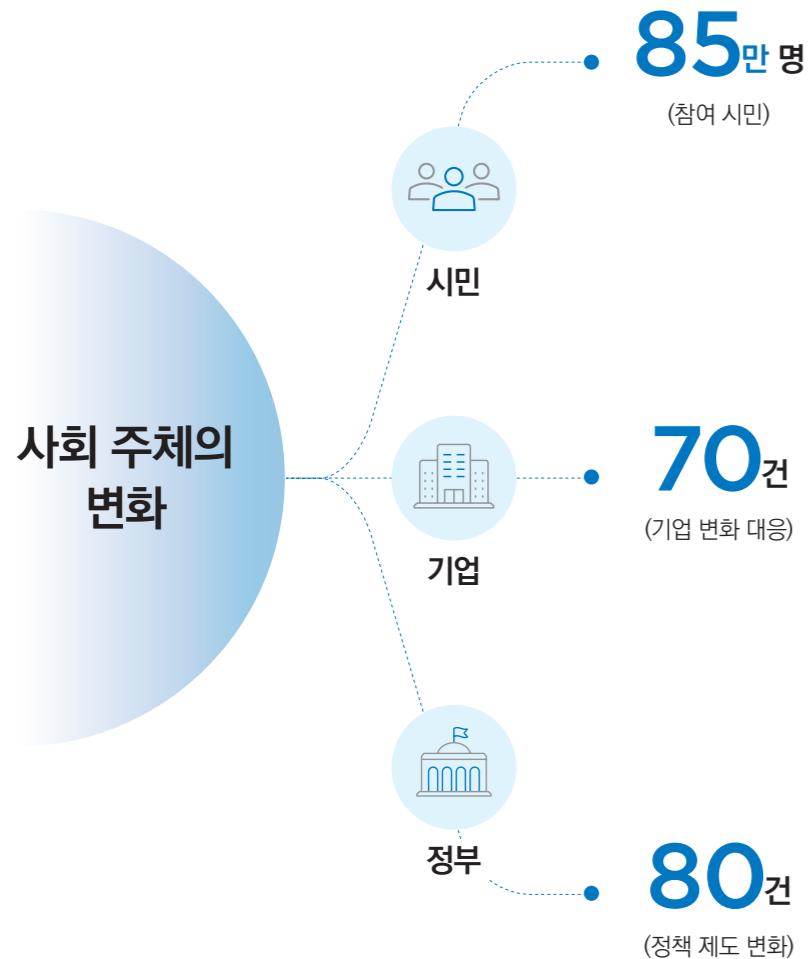
2021 ~ 2022

2023 ~ 2024

※ (21년 + 22년) 대비 (23년 + 24년) 성과 증가율

2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는 혁신조직의 주요 성과

2. 사회 주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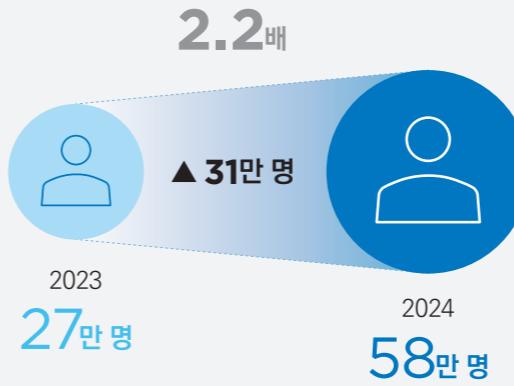


2023~2024 성과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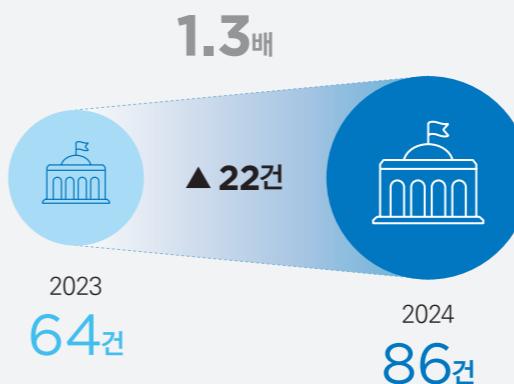
2023 → 2024 성과 증가율

임팩트그라운드 전·후 성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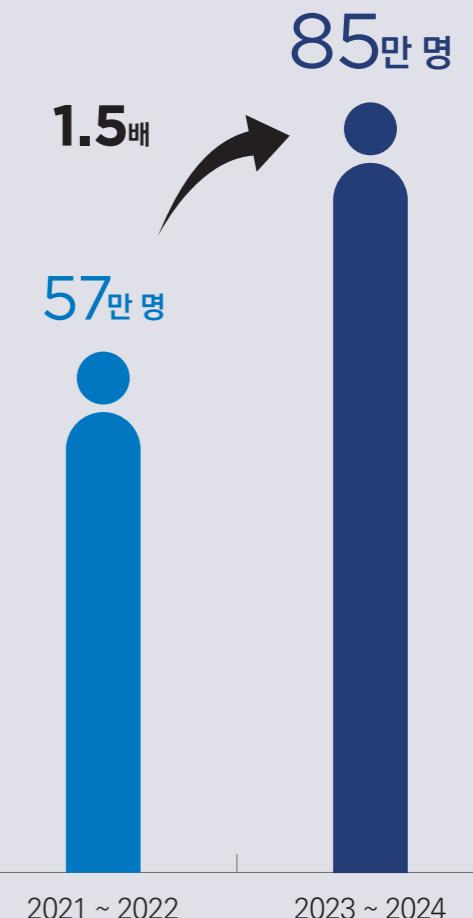
참여 시민 인원



기업 - 정부에 대한 이슈대응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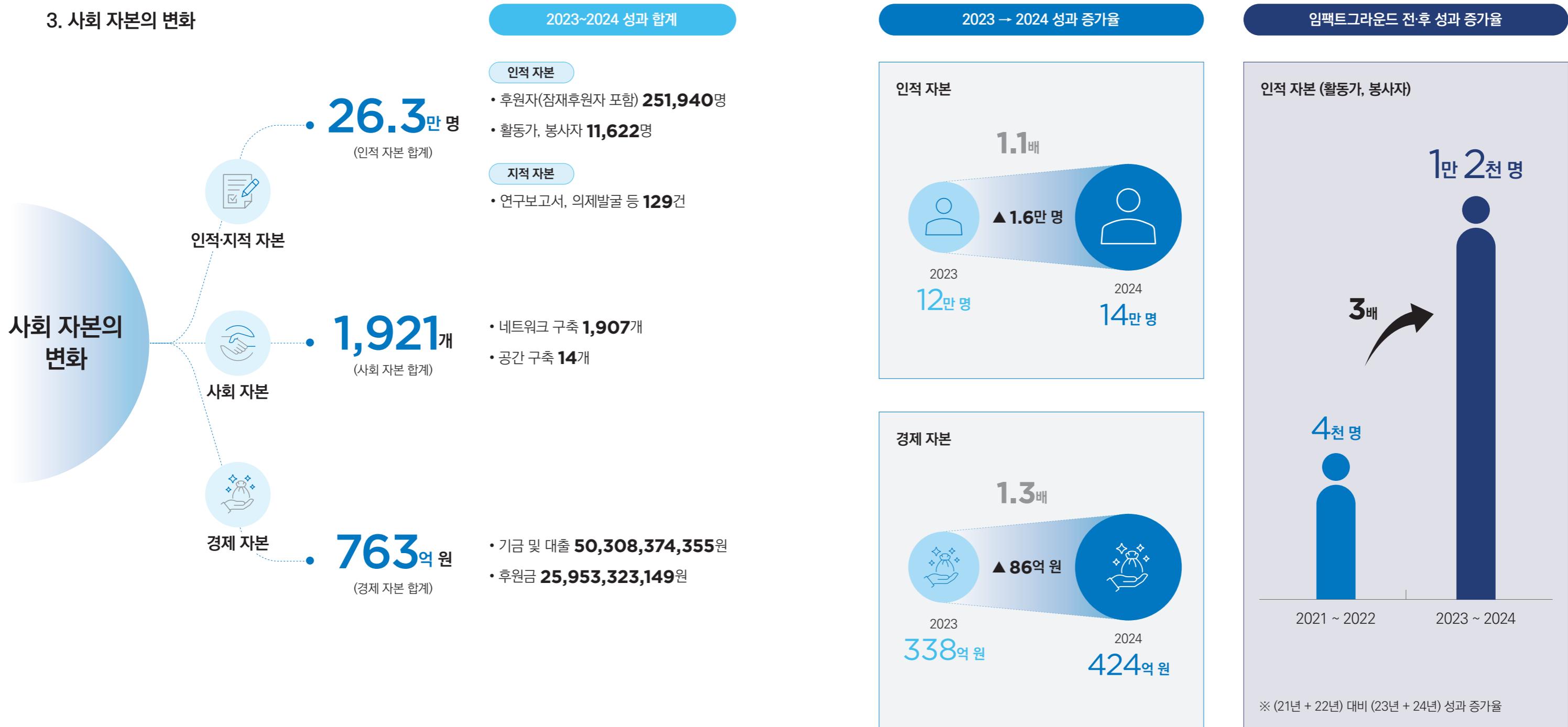
참여 시민 인원



※ (21년 + 22년) 대비 (23년 + 24년) 성과 증가율

2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는 혁신조직의 주요 성과

3. 사회 자본의 변화



닫는 글

빅 벳을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다

지난 여정 동안 임팩트그라운드는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조직의 동반자이자 터전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한 자금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겠다는 결심,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끝까지 실천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혁신조직들이 보여준 성과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변화는 임팩트그라운드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의 불안정성, 소외된 이웃들의 권익보호, 교육과 의료, 경제적 불평등과 인권문제와 같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된 맥락을 바라보는 시각과 끝까지 책임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크고 깊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조직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